

2023. 2. 22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21일 오전 11: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

동물보호과장	이미경	2133-7645
--------	-----	-----------

동물보건팀장	배진선	2133-7651
--------	-----	-----------

담당자	송인준	2133-7652
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5쪽

관련 누리집 (메뉴)

<https://animal.seoul.go.kr/>

서울시,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마세요 '우리동네 동물병원' 3월부터 지원

- 「약자와의 동행」 위해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더해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확대
- 올해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...우리동네 동물병원 92개소 지정·운영
- 건강검진, 필수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 지원
- 보호자 1만원만 부담, 가구당 2마리 까지 20~40만원의 진료비 지원·1,500마리
- 시,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 높은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긍정적 효과 기대

#서울 강서구 김모씨는 얼마전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키우던 강아지 가을이를 데리고 집근처 '우리동네 동물병원'에 방문했다가 가을이가 '자궁축농증'이 있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내려 앉았다. 다행히 수술비 등을 지원받아 상태가 악화되기 전 수술을 통해 가을이는 완치될 수 있었다. 평소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 동물병원에 자주 데려가지 못한 것이 계속 미안했다는 김모씨는 이러한 지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동물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전해왔다.

- 서울시가 「약자와의 동행」 시정철학에 맞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,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까지 강화하는 '우리동네 동물병원' 사업을 시작한다.

-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‘우리동네 동물병원’을 지정하고, 보호자가 1만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질병 치료 등 20~40만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.
 - ‘우리동네 동물병원’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(약 10만원 상당) 동물병원이며,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(<https://animal.seoul.go.kr>),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- 이 사업은 ‘21년 시범운영 후 작년에는 21개 자치구가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총 1,679마리가 지원받았다. 올해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정병원을 68개소에서 92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.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1,500마리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 -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고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.

-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이다. 반려동물과 함께 ‘우리동네 동물병원’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.
 - 동물의료 지원을 받을 때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를 가지고,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.
 - 다만,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 받을 수 있다. 서울시 ‘내장형 동물등록칩’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.

-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(기초 건강검진, 필수 예방접종, 심장 사상충 예방약)와 선택 진료(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, 중성화 수술)이다.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천원(최대 1만원),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.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, ‘우리동네 동물병원’ 의 재능기부로 지원한다.

-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우리동네 동물병원’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”며 “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우리동네 동물병원 필수 동물의료지원 항목
2. 반려동물 진료 사진

[붙임 1] 우리동네 동물병원 필수 동물의료지원 항목

개

(단위 : 원)

진료명		개					
		성견		자견(1년령 미만)			
		1차	2차	1차	2차	3차	4차
기초검진	X-ray	●					
	혈액검사	●					
	CCV/CPV/Giardia 검사			●			
예방접종	종합백신	●		●	●	●	●
	코로나	●		●	●		
	인플루엔자		●				
	켄넬코프		●			●	●
	광견병		●				●
심장사상충	투약전 검사	●					
	투약(3회분)	●			●		
보호자부담	세부	5,000	5,000	5,000	5,000	0	0
	합계	10,000		10,000			

고양이

진료명		고양이				
		성묘		자묘(1년령 미만)		
		1차	2차	1차	2차	3차
기초검진	혈액검사	●				
	FeLV			●		
	FIV			●		
예방접종	종합백신		●	●	●	●
	백혈병		●	●	●	●
	광견병	●				●
심장사상충	투약전 검사	●				
	도포(3회분)	●			●	
보호자부담	세부	5,000	5,000	5,000	5,000	0
	합계	10,000		10,000		

[붙임 2] 반려동물 진료 및 이미지

